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9.9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○ 한수원, 체코와 '원자력 청정수소' 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(26.9.8, 에너지데일리)

-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경주 황룡원에서 체코수소협회와 '체코 및 유럽연합의 원자력 수소 법·제도·정치 환경 분석 용역' 성과공유회를 열고 11개월간의 최종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음
- 양측은 원전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모델을 체코 현지 실증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유럽연합 시장으로 확대하는 후속 추진 전략을 논의함
- 한수원은 2024년 체코수소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Hydrogen Days 2025·2026에 연속 참가해 현지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고 함

○ 고려대 무전원 수소 누출 감지 센서 개발.. '색변화로 2초 만에 확인' (26.9.8, 베리타스알파)

- 고려대 유용상·김명기 교수 연구팀은 포스텍·경북대·서강대 연구진과 함께 전원이나 측정 장비 없이 수소가 닿으면 2초 만에 색이 바뀌는 누출 감지 센서를 개발함
- 연구팀은 수소를 흡수하는 팔라듐과 빛을 가두는 광학 구조를 결합했으며 수소 주입·배출을 30회 이상 반복한 뒤에도 초기 성능의 90% 이상을 유지했다고 밝혔음

- 센서는 얇은 PET 필름으로 제작해 수소충전소·수소차·수소 배관에 부착할 수 있고 수소 누출 때만 H₂ 경고문구·QR코드·특정 문양이 나타나도록 설계할 수 있음

○ 한국수소연합, 청정수소 수요시장 확대 전략 논의
(’26.9.8, 투데이에너지)

- 한국수소연합은 9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‘2026 제주그린수소 글로벌포럼’에서 청정수소 수요시장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음
- 세션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수소 수요 창출 사례, 수소 모빌리티의 산업적·사회적 가치, 수소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을 공유할 예정임
- 프라운호퍼 IKTS·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·일본수소협회·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전력·산업·교통 분야의 수요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연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

○ [패트럴] 인천시-인천시의회-인천시교육청-인천경제청
(’26.9.8, 에너지경제신문)

- 인천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7조863억원이 반영돼 당초 목표보다 1,863억원 많고 올해 확보액보다 6,12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음
- 미래 먹거리 4대 핵심 전략사업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전기·수소 자동차 보급 예산으로 1,263억원이 배정됨
- 인천시는 정부안에서 감액되거나 제외된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심의 단계에 대응할 방침임

□ 해외

- [네덜란드] Yara, 슬루이스킬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 공식 가동 ('26.9.7, Hydrogen Insight)
 - Yara International은 네덜란드 슬루이스킬 비료단지의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했다고 함
 - 2024년 착공한 이 사업은 연 180만톤 규모의 기존 회색 암모니아 공장에 탄소포집 설비를 추가하는 개조사업임
 - 회사는 슬루이스킬 설비가 유럽 최대 규모의 탄소포집 시설이라고 설명함
 - 설비는 연간 약 8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액화한 뒤 선박으로 노르웨이 베르겐 연안 바렌츠해의 Equinor Northern Lights 저장시설로 운송할 계획임
 - 이 사업은 유럽 최초의 국경 간 탄소포집·저장 체계로 추진됨
 - Yara는 포집·저장 체계를 통해 기존 공장의 암모니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일 계획임
 - Yara 경영진은 슬루이스킬에서 회색수소와 회색암모니아 생산도 계속된다고 설명함
 - 회사는 전체 생산량에 적용할 배출감축량 산정 방식을 검토 중이며 블루 암모니아의 정확한 생산량은 공개하지 않았음

- [리투아니아] 빌뉴스, 1,000만 유로 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…
2026년 말 생산 목표 ('26.9.7, Fuel Cell Works)
- 빌뉴스시는 CHP-2 부지의 3MW급 그린수소 생산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장비와 시스템 시험에 착수함
- Miesto gijos와 빌뉴스시가 추진하고 MT Group이 총괄 시공한 사업비는 1,000만 유로(약 157억 원)이며 유럽연합이 563만 9,285.09유로(약 88억원)를 지원함
- 빌뉴스시는 Viršuliškės 대중교통 차량기지에 도시 최초의 공공 수소충전소를 설치함
- 생산시설은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며 ISO 14687:2019 기준과 순도 99.99% 이상의 교통용 수소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됨
- 5년의 사업 유지기간 중 최소 한 차례 연간 142만 5,000m³ 또는 12만 8,000kg의 수소를 생산해야 함
- 시설의 최대 생산능력은 연간 28만 5,000kg으로 수소버스 약 40대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임
- 첫 단계에서는 디젤버스 16대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연간 약 1,4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임
- 공공 수소충전소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상용차와 일반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
- 빌뉴스시는 시험과 충전설비 설치를 마친 뒤 2026년 말까지 그린수소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